최근 5개년 동안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의 비중은 전체의 80.8%로 높고, 자가노력비 (28.5%)와 고용노력비(11.4%) 등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.

<표 3-3-26> 최근 5개년 기준 생산비 세부항목의 비중

(단위 : 원/10a)

순위	구분	5개년 평균	비중
1위	자가노력비	915,713	28.5%
2위	고용노력비	366,584	11.4%
3위	제재료비	325,766	10.2%
<del></del> 4위	농약비	289,305	9.0%
 5위	대농기구상각비	261,788	8.2%
6위	토지용역비	223,438	7.0%
7위	조성비	210,163	6.5%
8위	유기질비료비	148,654	4.6%
9위	영농시설상각비	93,059	2.9%
10위	무기질비료비	81,937	2.6%
11위	고정자본용역비	81,465	2.5%
12위	영농광열비	75,375	2.3%
13위	임차료	47,415	1.5%
14위	유동자본용역비	37,661	1.2%
15위	수선비	36,064	1.1%
16위	소농구비	5,996	0.2%
17위	기타요금	3,399	0.1%
18위	수리비	3,030	0.1%
19위	위탁영농비	2,466	0.1%
합계		3,209,279	100.0%

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 중 토지용역비를 제외한 6개 항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, 특히 조성비와 자가노동비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.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자가노동비가 16.6%로 가장 크고, 제재료비와 고용노력비도 각각 4.1%, 0.6% 증가하였다. 한편 농약비, 대농기구상 각비, 토지용역비, 조성비는 2012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<표 3-3-27> 사과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부항목의 변화율

순위	세부항목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)	비중	5개년 평균	2012 vs.2013
1순위	자가노동비	915,713	28.5%	9.5%	16.6%
2순위	고용노력비	366,584	11.4%	6.1%	0.6%
3순위	제재료비	325,766	10.2%	5.1%	4.1%
4순위	농약비	289,305	9.0%	6.7%	-1.5%
 5순위	대농기구상각비	261,788	8.2%	9.7%	-0.4%
6순위	토지용역비	223,438	7.0%	-5.5%	-4.7%
7순위	조성비	210,163	6.5%	10.0%	-2.5%